



신준혁

Digital Implant : But not today

- 1998.02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2001 ~ 현재 디지털아트치과 대표원장

현재 대한민국 치과계는 디지털이 매우 화두가 되고 있다.

실시간 렌더링 3차원 구강스캐너의 등장과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CBCT와의 병합을 통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이 많이 연구되어 왔고, 이를 통해 최소침습 치료와 당일 보철수복이라는 술식까지도 구현되고 있다.

중래의 석고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이용한 치료 술식을 비롯한 인공지능을 통한 소프트웨어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아직 치과 디지털에 대해 관심만 있고 실제 구현해 보지 않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디지털 임플란트 부분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될것만 같은 공포심마저 들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본 연자는 지난 10년 이상 디지털에 관련한 강연 활동을 전 세계를 다니며 해왔고 여러 나라의 유명 치과의사들과 교류해왔으며 국내외의 유명한 캐드캠 회사의 연구개발 자문 의사로서도 활동을 한 바 있기에 감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과연 그러한 디지털의 발전을 공포심이나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면서까지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를 가진다.

개원가의 환경에 더구나 우리나라의 치과 환경에서 디지털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학문적 연구나 여러 가지 시도는 적극 권장하는 바이나 필수적인 요소로까지 강박적으로 자신의 환경에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를 해가며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직원 서너명의 동네치과와 직원 60여명의 시내치과를 두루 거쳐본 본 연자의 아주 주관적인 견해를 본 강연을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